

2009년 1월 7일 수 말씀

사람이 관리를 할 때 자기 본인을 가지고 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감각이 항상 자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기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만물 갖고 말을 할 때 ‘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갖고 할 때 제일 맞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는 누가 잡아줘야 합니다. 관리 잘 해주십시오.

한국은 발전이 빨리됩니다. 외국은 나라들이 큰 만큼 문화가 발달되어서 세계를 향해 자꾸 가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다른데 한번 눈을 떠서 가면 그 세상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이 한 번 꺾이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죽어도 돌아온다고 하지만 살아서 다시 오는 것이 힘듭니다. 나는 이제 겨울철에 운동장에서 뛰듯이 뛰어야 합니다. 한번 땀이 식으면 뛰여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면 몰라도 나가면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신앙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세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소경들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세계를 계속 깊이 내다 본 겁니다. 그동안 월명동 개발하고 선교하고 일 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10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어마 어마한 깊은 세계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 목회는 말씀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지도자 찾는 것이 힘든 때입니다. 섭리사는 내가 갖춘 것이 많으니까 많은 것을 말씀한 것으로 앞으로 딱딱 밀고 나가면 크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밀어붙이고 해야 합니다. 내가 나가면 지도자들 교육도 시키고 확확 밀어 붙일 것입니다. 원래 내가 생각보다 10년 당겨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외국에 발 붙여 선교하면서 한창 막 되는 상황에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계속 외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작년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행기로 10대정도 인원이 왔다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왔으니까 올해는 더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자꾸 잘 되니까 비행기 몇 십대로 또 날아 올 것입니다. 내가 해외 안 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처음에 나가 보

니까 선교사들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답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교인이 30명이면 1년이면 금방 70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개척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척교회 교역자가 5년 동안 40명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 다니라고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지 괜히 왜 힘들게 개척하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기본으로 몇 십 명 있으면 1년이면 배가해야 됩니다. 개척한다는 사람이 배가도 못하면 됩니까? 혹시 천 명 정도면 배가하기 어렵지만 몇 십 명 가지고는 배가 운동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보고 쉬면서 교회만 나오라고 하고 교역자 혼자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잘 해주면 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죽을 때 까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염려 되는 것은 필요 없이 내가 기도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애들 위해서 120만 번 기도해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사람도 이빨로 열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자기 몸둥이 하나도 못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 이런 차이입니다. 열차를 끄는 사람이 처음에는 몸으로 끌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끌게 되는데 이것은 열심히 뛰고 달려서 그 만큼 힘을 보강해서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그 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만 명 금방 됩니다. 하는 방법을 압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해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1년에 천 미터 길을 닦을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1년을 해도 천 미터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길과 연결시키면 완전히 만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도로도 닦아서 나오다가 원 도로와 연결시키면 완전히 그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원 도로의 길이와 합쳐져서 수 십 키로 수백키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짚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나를 중심하고 집중해봤자 안 됩니다. 시원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목회하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역자는 10대였는데도 몇 천 명씩 몰고 나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밀어붙여서 하라’ 했더니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없습니다. 인재들만 있으면 큰 교회 다 맡기려고 합니다. 한 번씩 바꿔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재가 없습니다. 그 동안 기도 많이 하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능력 받고 했어야 합니다. 누가 지나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어마어마한 불이 떨어진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시대로 바꾼 것입니다. 은혜로 바뀌어서 요새는 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겪어봐야 압니다. 겪은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죽는 걸 보고 인생의 허무를 느껴 그때부터 확 돌변해서 예수님을 증거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